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1. 계시록 서론

2013. 01. 06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새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시간을 또 애청하셔서 성경진리의 정로에서 이 한 해도 복된 신앙생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합니다. 또 허락한 새 해를 소망 중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1~3]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 목사님, 2013년도 라디오 코리아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요한계시록 강론 대담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애청자들께서도 요한 계시록의 비밀을 함께 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답: 예, 이렇게 요청에 선선히 응낙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어렵다고 말하는 요한 계시록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2. 그러면, 목사님, 요한계시록 제목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답: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름 그대로 요한이 본 계시를 적은 글이라는 뜻이지요. 계시라는 말은 열 계(啓)에 보일 시(示) 기록할 록(錄)자이지요. 열어서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어 헬라어와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나타내다 드러내 보이다는 뜻이니깐요. 우리말 번역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어려워져서 알 수 없는 책이라고 말한다니 참 이상하지요. 읽어서 알도록 열어놓은 책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잘 열어봅시다.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자는 누구입니까?

답: 책 이름이 말하는 대로 요한입니다. 신약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지요. 그러

나 대표적으로 침례요한과 사도요한이 있습니다. 초기 교부들이 글에 장로요한이 있어서 요한 복음과 계시록, 또 요한서신 기자에 대하여 혼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암시적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4. 예수님이 어떤 암시적인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셨다는 말씀인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묻지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요21:22) 요한은 이 대답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해명하지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리라.”(요21:23)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 재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요한을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는 암시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요한은 밧모섬으로 유배되고 거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남겨 주었습니까. 제 생각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5.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역사적 진행을 예언한 계시라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문장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이지요. 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한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연구해야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6. 목사님, 그러면 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언제쯤이지요?

답: 학자들이 90~1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지요. 넉넉히 잡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96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당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요한만이 생존해 있었고 다 순교 당하였지요.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시안이었는데,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삼위일명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할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요한도 잡아서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결국 그를 밧모 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내가 오래 전에 밧모 섬에 들렀는데, 거기 요한의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요한이 거기서 기거했다는 전설인데 그것이 맞는다면 아마도 그 동굴에서 계시를 봤겠지요. 동굴 밖에는 에게 해의 파도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7. 그러면 그 동굴에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답: 도미시안이 죽고 네르바 황제 때에 대략 기원 96년경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밧모 섬에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인데, 밧모에서 풀려난 다음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밧모 섬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요한이 책을 기록할 여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8. 그것을 기록한 장소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생각하기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건 그렇고 목사님, 계시록에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답: 예, 아주 중요한 것을 물으셨네요. 당연히 하나님의 확실한 영감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경 계시의 종결을 나타내는 책으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계시록이 없다면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의 역사의 종결이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종결에 대한 계시가 계시록 외의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없으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종결되는지 헤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 계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계시록이 항상 그렇게 인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그 당시에는 계시록이 의심나는 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이유까지 말하려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시간을 쓰게 되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서령의 역사로 오늘날 신약성경에 포함되었고, 성경 전체의 종결 계시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사상이 집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책이지요.

9. 예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답: 당연히 목적이 있지요. 크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주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즉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계시를 보여주신 당시의 사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는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때가 아닙니까.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를 주와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방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종교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일 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신전에 가서 황제의 상 앞에 향을 피우고 절하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신전 관리인에게 그렇게 경배했다는 증명을 받은 후에야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제숭배가 국가적으로 강요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어땠겠습니까. 황제숭배를 거절하면 투옥되거나 심지어는 사형 당해야 했습니다. 요한도 황제숭배를 거절한 죄로 유배 갔지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지요. 많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었고, 더러는 순교했습니다. 아마 로마 당시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10. 예, 역사로 듣고 아는 일이지는 합시다만 경험한 사람만이야 하겠습니까. 그런 황제숭배 문제와 계시록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황제숭배 거절로 귀양 와 있는 요한에게 승리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 최후승리는 보장된 것이라는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1장에 거론된 로마 식민지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는 직접적인 고난에 직면한 교회들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그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용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궁극적 해결책을 보여주신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을 수 있지요. 또 이런 사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가 될 것이지만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것이며 세상나라가 로마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확약하심으로 모든 역사적 시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확실한 천국을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더 확신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지요. 예수님은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요13:19)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시되 막연하지 않고 예언된 사건이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의 확실함과 성경진리의 확실함을 제시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여 환난의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를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대한 일반적 사실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애청자들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을 강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답: 그렇게 하지요. 계시록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지요. 1장은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2,3장의 서론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고 진행되어 있습니다. 처음이 2,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한 것, 둘째는 5,6장의 일곱 인, 셋째는 7~9장의 일곱 나팔, 넷째는 10~14장의 짐승들과 사람 사이의 큰 전쟁, 다섯째는 15,16장의 일곱 대접, 여섯째는 17~19장의 심판, 일곱째는 20~22장의 종결 부분입니다. 이런 구분은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다 같다고 볼 수 있지요.

12. 최근 학자들이 말하는 교차대구법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아마 요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교차대구법이라는 기록 기법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런 구조로 성경을 풀이하려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교차대구법을 영어로는 카이즘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물건을 거울에 비추면 거울에 보이는 것은 실물과는 반대로 영상이 뜨지 않습니다. 삼각형의 한 꼭지 점을 거울에 대면 거울에는 역삼각형이 뜨지요. 계시록이 그와 같은 구조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 진행 방법의 역순으로 14장부터 22장까지 사건이 전개 배열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리 쉽게 다가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쯤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자들이 살피니까 그렇게 되

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전체 기자들이 이런 기록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그런 구조로 연구하는 것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당시 기록법이 그랬는지 저는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성령의 감동과 지도를 따라 기록한 것으로 믿고 그렇게 구구절절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정말 학자가 아닌 사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3.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본문을 살피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답: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이미 오늘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봉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1:1~3절을 봉독하시겠습니까?

[계1:1~3]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감사합니다. 계시록은 1절부터 이 책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책의 권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계시록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지만 1절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언하지요. 그래서 이 책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책의 권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장엄한 서두이지요. 계시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1~3절은 계시를 주신 분을 밝히고, 계시의 내용을 암시하고, 계시의 목적으로 나타내며, 계시의 기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계시의 효용을 말합니다.

14.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지요.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다음 계시의 목적은 그 종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기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밝히고 효용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책은 반드시 읽고 연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15. 계시라는 말씀을 자세히 밝혀주신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답: 이 말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잠깐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우리말 계시록이라는 한자어를 풀이하면서 원어에 대한 것도 잠깐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칼립시스와 아포의 합성어인데, 아포는 ~~으로부터라는 뜻이고, 칼립시스는 덮개, 또는 가리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열기, 또는 가리개를 벗기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제막식이라는 것 알지요? 어떤 동상이나, 비석에 비문을 새긴

후에 천을 덮어놓았다가 제막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 막을 벗기면 작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줄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에게 제막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들이 그 내용을 다 보고 알 수 있지요. 계시록은 복음이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어날 비밀들을 다 꺼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상태로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계시록적이지도 않습니다. 애청자들께서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책이고 깨달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16. 그런데 목사님, 3절을 보니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예, 목사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옛날 사정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은 책이 지천으로 많고, 의무교육으로 자기나라 문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지요.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5% 미만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상태였다고 어떤 기록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또한 책도 너무 귀해서 아무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덕에 누구나 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기 때문에 옛날의 이런 사실을 잘 이해 못 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사정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책도 값싸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계시록을 읽고 연구해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계시록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한해 동안 이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면서 함께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7.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시간에 계속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역사 진행의 비밀을 열어서 예수님의 종들에게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한 계시록 강론을 한 해 내내 예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저희들이나 애청자들이 잘 깨달아 알아서 허락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기쁨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